

4. 장과 장 사이에서 막힘: 잠시 여행객이 되는 것 Stuck between Chapters: Being a Transient

당신은 아마 지금 삶의 한 장을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다음 장을 시작하지 않았다. 때로 작가들은 장들 사이에서 ‘막히곤’ 한다. 그들은 다음 장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책을 계속 써나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곤 한다.

공중그네 곡예사는 다음 그네를 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달리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만 한다. 곡예사는 어떠한 것도 잡고 있지 못한 채, 몇 초 동안 공중에 떠 있어야 한다. 한 동안 섬겼던 문화를 떠나 집으로 돌아올 때, 당신은 공중 곡예사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 장소를 떠났지만, 아직 다음 장소에 속해있지 않다.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니고, 미래의 당신 또한 아니다. 어떠한 것도 잡고 있을 것이 없기에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다.

당신은 이것이 처음으로 고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들조차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21장 1절에서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는 사도바울을 보자. 작별인사를 하는 그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그는:

- - 무릎을 꿇었다.
- - 기도했다.
- - 울었다.
- - 포옹했다.
- - 입 맞쳤다.
- - 슬퍼했다.
- - 작별했다.
- - 바다로 나아갔다.

비록 당신의 몸은 고국에 도착했을지라도, ‘마음’은 ‘바다’에 있어, 정신적인 집을 풀어놓지 않았을 수 있다. 집을 푼다는 것은 지난 장에서 언급했듯이 과거의 것들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몇 달, 혹은 수년 전에 짐 속에 함께 넣어둔 고국의 옛 ‘구습’들을 꺼내는 것이다. 이러한 구습은 ‘집’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데, 무엇을 입을 지부터 어떻게 물건을 구매할 것인지까지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당신은 여러 시간대를 빠르게 지나칠 때, 시차로 인한 피로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대략 1주일 동안의 시간을 갖고 몸의 체계가 일치되어 일제히 제 기능을 하게 되기를 기다린다.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마치 집으로 우회하는 도중에 길을 잃고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혼란스럽거나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느껴지는 심리적 ‘시차’이다.

바울은 ‘슬픈 이별’을 하고 ‘바다로 나아간다’. 여행 중 바울은 적어도 2-3주 동안 마음의 집을 풀어놓는 과도기를 갖는다. 그는 400-500마일 정도 항해하는 도중 일주일간 두로에 머문 후, 가이사랴에도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된다(행21:1-15). 오늘날 비행기 여행으로 우리는 두 세시간 정도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고, 마음의 집을 풀어 놓을 시간을 거의 또는 아예 갖지도 못한다.

당신이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약간의 시간을 갖고, 다음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삶의 게임’에서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에게 어떠한 규칙이 바뀌었는가? 당신이 떠나있는 동안 고국에서 몇 가지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유념하라.

규칙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이 통제 밖이라 느껴질 것이다 (부록 참조). 이러한 규칙을 배우고 다른 이들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적혀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장들 사이에 있어서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드리워져 있다면 다음 말씀을 기억하라. “...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주는 당신이 느끼는 혼돈 속에서 꺼내주기 위해 당신 삶 속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주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지금 당신 속에 창조해 주고 싶으실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 생각들을 적어보아라. 만약 적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 속 생존경쟁에 시달릴 때 이런 생각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오래된 이전 방법들이 생각날 것이다. 그것들이 지금 당장 불가능해보여도 적어 보라.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라. 지금의 과도기는 “나는 할 수 없어” 또는 “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험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위에 적은 생각들 중 어떤 생각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실제로 시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 당신 속에 지나치는 생각들을 열거해봐라. 이것들은 당신이 하는 행위와 관련될 수 있고, 당신이 가는 곳, 삶 속에 갖는 변화 등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 혼돈스럽고 공허하여 흑암이 드리워져 있어 보일 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나가는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때때로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